

자료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성명 5(2023)\*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국가 —

김종서 옮김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헌법학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조기 경보 및 긴급행동 절차에 따라 행동하면서,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폭력의 규모와 인도적 참사, 그리고  
종교가 더 광범위한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에  
경각하면서,

10월 7일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최소 1,400명의 이스라엘인의 죽음과 인  
질 납치는 물론 5,400명 이상의 부상을 초래한, 하마스와 기타 무장집단  
에 의해 자행된 잔혹한 공격과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발사에 깊은 충격  
을 받았고,<sup>1)</sup>

또한 가자지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군사 공격,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후 적어도 2,900명의 아동을 포함하  
는 7,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살해와 18,400명 이상의 부상자  
는 물론 가자의 잔해 아래 갇혀 있다고 알려진 900명의 아동 등 1,600명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수만 채의 가옥의 파괴를 가져온 공습에 관해서도  
깊이 충격을 받았으며,<sup>2)</sup>

현재 진행 중이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점령된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 출처: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RD%2FSWA%2F9904&Lang=en](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RD%2FSWA%2F9904&Lang=en)>.

1) Hostilities in the Gaza Strip and Israel | Flash Update #20,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26 October 2023 참고.

2) 위와 같음.

더 강화하고 식량, 물, 전기, 에너지원과 보급품 및 의약품 등 필수품 제공을 보류함으로써, 가자지구에 있는 23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대한 일종의 집단적 처벌을 가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10월 9일 결정에 경악하고,

10월 12일 유엔 피난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포함하여 북부 가자에 있는 11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24시간 안에 남부 가자로 이주하라고 명령하는 이스라엘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기간에 걸친 군사점령과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기타 국제적 인권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정착 등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들을 깊이 우려하면서,<sup>3)</sup>

10월 7일 이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단살해적 행동을 선동할 수 있는 언어인 ‘인간 동물들’이라고 언급한 이스라엘 국방부장관 요아프 갈란트가 한 10월 9일의 성명 등 중견 관리, 정치인, 의회 의원 및 공적 인물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과 모욕이 급증한 데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자의적 체포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치명적 폭력의 불법 사용의 증가와 정착민 폭력의 증가 등, 적어도 32명의 아동을 포함한 최소 103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을 살해한, 10월 7일 이후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악화하는 인권상황에 관하여 우려하면서,

1979년 이래 이스라엘이 당사국이 되었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정과 특히 제2조(1), 제3조, 제4조 및 제5조(a)-(d, i과 ii)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한 2019년 12월 12일의 결론적 견해(CERD/C/ISR/CO/17-19), 특히 단락 3, 9, 10, 22, 23, 26, 27, 44 및 45를 상기하면서,

---

3) 2019년 12월 12일에 채택된 위원회의 결론적 견해, CERD/C/ISR/CO/17-19 참고.

또한 2019년 8월 23일 위원회가 발한 팔레스타인국가에 관한 결론적 견해(CERD/C/PSE/CO/1-2), 특히 단락 19와 20을 상기하면서, 법집행관리에 의한 인종적 프로파일링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36호(2020),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 퇴치에 관한 일반권고 제35호(2013), 자기결정권에 관한 일반권고 제21호(1996), 그리고 협약 제5조에 관한 일반권고 제20호(1996)과 협약 제3조에 관한 일반권고 제19호(1995)를 상기하면서, 이스라엘과 기타 당사국들이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약속했던 국제적 의무를 상기하면서:

1. 이스라엘에 그 국제적 의무를,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2. 이스라엘 및 기타 당사국들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진전 및 실행하도록 촉구하며,
3. 하마스 및 기타 무장집단에 의하여 납치된 인질의 석방은 물론 이스라엘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및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4. 이스라엘과 기타 당사국들에 점령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재정적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사람들이 가자를 떠나고 귀환할 수 있도록 할 인도주의적 통로의 창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5. 이스라엘에 그 실효적 통제하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 특히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협약상의 완전한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생명과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물론 의료권과 이동 자유권의 향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6. 이스라엘에 모든 형태의 혐오 표현을 확고하게 비난하고 정부 및 의회 구성원 등 정치인과 공적 인물들에 의해 표현된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과 거리를 둘 것,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수사하여 적절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7. 나아가 이스라엘에 대중매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품은 물론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에 취약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중매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의 확산에 맞서싸울 것을 요구하고,

8. 팔레스타인국가에 2019년 8월 23일 위원회가 그 결론적 견해에서 밝힌 권고들을 이행할 것, 특히 인터넷상의 것과 공적 인물, 정치인 및 대중매체 관리자들에 의한 경우 등 혐오 표현 및 폭력의 선동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하며,<sup>4)</sup>

9. 이스라엘에, 위원회가 2019년 12월 12일의 결론적 견해에서 밝힌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a.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들, 당사국의 실효적 통제하에 있는 영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하여 목적이나 결과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

. 인권 및 관련 국제인도법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이행되도록 할 것

b. 그 봉쇄정책을 폐기하고 가옥과 민간 인프라의 재건을 긴급히 허용하고 촉진하며, 필요한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또한 협약에 따라 이동의 자유, 주거, 교육, 보건, 물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

2023년 10월 27일

---

4) 2019년 8월 23일 채택된 위원회의 결론적 견해, CERD/C/PSE/CO/1 2, 단락 19 20 참고.